

# 일본선주협회, 선박톤세제도 도입 강력 추진

## 일본 정부에 동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

일본선주협회는 자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협회는 톤세제도 도입을 올해 중점추진사업으로 정하고, 최근 일본선사들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선진톤세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발표된 노무라/일본통운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선사들의 해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톤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일본 해운회사들이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과 달리 많은 외국 선사들은 해당국의 톤 세제를 활용하여 운항비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선사들의 수익률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하거나 외국선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톤세제도를 이용하는 선사들은 저렴한 선박금융으로 해운 불황시 선박에 투자하여 해운 호황시 선박을 매각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선사들은 상황이 좋아 신조선가가 높을 때에 투자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짠 가격에 선박처분을 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본 정부가 선박톤세제도를 포함, 자국의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영국, 네덜란드, 한국과 같은 선박적용에 제한이 없는 가장 포괄적인 제도 △일본으로 원자재와 화물을 직접 수송하는 선박들로 톤세 제도 적용 선박을

제한하는 방안 △일본국적선 증대와 국내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다.

일본 해운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의 이 같은 제도 가운데 하나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일본선주협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에 동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한편, 한국에 실무조사단을 보내 톤세제도 시행현황을 벤치마킹하는 등 톤세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전세계 해적피해 6년 만에 최저

지난 2005년 한해동안 세계적으로 발생한 해적 피해건수는 모두 276건으로 2004년의 329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국(IMB :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피해수치는 지난 6년동안 일어난 해적행위 가운데 가장 적은 건수로서 해상강도 예방을 위한 위험수역 인접국가들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것으로 분석됐다.

IMB는 지난해에 모두 12명의 선원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으나 해적 공격으로 선원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2004년에 해적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이라크 해역의 경우 지난해 모두 10건이 일어나 주요 위험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아프리카의 소말리아의 경우 2004년에 2건에서 지난해에는 모두 35건의 해적 사건이 발생,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적 출몰 지역으로 분류됐다.